朝鮮日報
夕刊
二十四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光朝鮮」「女性」「少年」 同社發行)

金美香油 髮香을 아름답게하는

招商局의全財産을 結局米銀行團에移讓

從來의債務不履行을理由로 米領事舘法廷서判決

【上海二十三日發同盟】米國銀行團代表인 리얼한트氏에 對한 國民政府經營 招商局輪船公司의 債務不履行을 理由로한 全財産引渡에 關한 繫爭事件은 二十三日上海米國領事舘 法廷에서 米國判事로부터 招商局全財産을 한트氏의 所有에 歸한다는 旨의判決言渡를 行하엿다 右는압서 招商局이 한트氏를 代表로한米國銀行團에 對하야 一千九百萬弗의 債務를가지고 그利子支拂을 하고잇든바 事變으로 業務가全혀停止되여 利子及元金도 支拂이 不能하게 되엿스므로 한트氏로부터 그全財産引渡要求가 엿서 上記의判決을 한것으로 右는國民政府直營의 招商局 그所有財産을 我軍에게 敵産으로 處理밧는것을 두려워한結果 스스로求하야 한트氏에게 右를移讓한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右財産은거의占領區域內에잇는 事實로보아 그의 實現에는 當然 困難할것으로 觀測된다

靖國神社臨時大祭(第一日)

本殿奉告祭와 招魂의儀執行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初의 靖國神社臨時大祭는 드디어 二十四日부터 五日間에 亘하야 嚴肅히 執行되는바 前日의 二十三日은 英靈에 哭함과 如한 春雨에 九段神域의 新綠은 저저서 淸淨의 氣가 嚴肅히 떠도는가운데 그父 그子 그夫를 追憶하는 新祭神遺族들이 謹愼히 玉砂利를 울리우면서 社頭에 언제까지나 머리를 숙이고잇섯다 陸海軍祭典委員神職은 거이 徹夜로 準備에 努力하야 今日을 迎한것이다 惶恐하옵시게도 各宮殿下 各關係로부터 奉獻의 眞榊 神菓 淸酒等이 勇士의首日의 武勳을 讚揚하야 山과가티 노피 境內에 싸엿다 九段의 거리거리에 林立한商店도 今年은 그러케생각하는탓인지 例年과가티 騷亂치안코 二十四日午後三時부터 衛濟陸軍省 高級副官 近藤海軍省 高級副官等四名의 陸海軍兩省係官 神宮司 鈴木孝雄大將以下 神職은 祓所에 參進 着座 먼저 莊重한 淸祓의 儀가 執行 本殿奉告祭의 儀가 執行되고 午後七時부터는 忠魂이 永遠히 神鎭하는 招魂昇天奉還의 儀가 嚴肅히 執行될터이다

【東京電話同盟】戰野에 恨을남긴 忠烈의英靈 四千五百三十三柱를 招함 臨時大祭招魂式의 儀는 二十四日午後七時부터 嚴肅히 擧行된다 招魂齋庭은 本殿右側의 廣場에 自慢幕, 白電燈이 嚴肅히 設備되여 齋庭을 에워싼 櫻葉의 香氣도 그윽하야 神鎭하옵시기 알맞다 式은 午後七時四十分 大篝火를 피움으로始作되어 同七時二十分 遺族九千名參着, 七時半에는 近衛步兵第二聯隊의 進士中尉指揮의 儀仗兵一個中隊가 參着 八時부터 合祀關係部隊代表者〇〇名 在京陸海軍各官衙學校近衛, 第一兩師團의 勅奏任官總代, 判任官總代, 陸海軍兩省係官以下가 參着 嚴肅한 齋庭幄舍裡에 神饌을 供하고 軍樂奏樂裡에 鈴木宮司는 祝詞를 奏하고 玉串을奠하고 御扉를 開하야 齋官以下奉仕하고 神饌을 撤한後 再次 軍樂을 奏하고 庭燎와 境內의 燈火가 一齊히 消火된 幽遠의氣가 漲溢한 中에 靈璽는 御輦에 奉戴되어 神職이 前行하고 宮司以下參列各官屬從하야 肅肅히 內殿에向한다 어리하야 靈璽를 本殿에 奉安, 燈火는 一齊히 點火되고 鈴木宮司祝詞를 奏한後 十時頃에 軍樂奏樂에 警蹕의聲이 嚴肅한속에 御扉는 閉鎖되어 忠魂은 永遠히 護國의 神으로서 九段의 社頭에 鎭座케된다

支那艦隊勇士英靈 合同慰靈祭擧行

【上海二十四日發同盟】租界護備 從全確保에 支那海의 苦難을 무릅스고 航行遮斷에 名譽의戰死를한 支那艦隊勇士의 英靈을 祭祀하는 合同慰靈祭는 二十四日午前十時半부터 上海新公園에서 壯嚴히 擧行되엿다 新公園祭壇은 莊嚴히 淸掃되고 定刻前부터 飛翔하는 海의 荒鷲의 轟音도 今日은 悲壯하게울리고 軍樂隊의『悲의極』吹奏裡에 出雲艦長의 引率한 陸戰隊의 將兵數千은 銃劍을번득이며 隊伍를整備入場 長谷川司令長官以下 各司令官 大川內陸戰司令官을 爲始하야 畑中支方面最高指揮官 日高總領事以下各將士 官民多數와 一般參拜者의 羅列下에 齋主鶴田宮司의祝詞가 잇슨後 長谷川司令長官의 胸襟을 찌르는듯한 祭文朗讀 齋主와밋 長谷川司令長官以下 各司令官의 玉串奉奠이 잇슨後 同十一時半 盛大히式을 畢하엿다

各地匪團擊破

【北京二十三日發同盟】京漢線의 集團匪의 肅正工作은 着着進展되여 我確保地域全線에 亘한一掃도 거의가까워젓는데 去十八十九兩日에 亘하야 行한 我軍의 攻擊에 焦作附近의 山岳에

戰費調達에困窮

五億六千三百萬元의外貨債 國府又復公債發行

【上海二十三日發同盟】漢口來電에 依하면 戰費에 窮한 國民政府는 압서五月一日附로써 五億元의 國防公債를發行한다는旨를 發表하엿는데 二十三日 다시五億六千三百萬元의 外貨債發行을 發表하엿다이는 一、一億外貨金單位의賃單位公債 一、一千萬英磅의英貨債 一、五千萬米弗의米貨債로分하야 元利拂은 모두外貨로써 支拂하려는것이다

蔣介石을圍繞한 外交團의活動注目

各國大使往來頻繁

【上海二十三日發同盟】漢口來電에 依하면 蔣介石은 二十三日夜 오렐스키蘇聯大使와 晩餐을가치 하고 二十四日은 커ー英大使는 廣東으로나와 香港經由上海에 歸還할 豫定이다 蔣介石은 英蘇兩國大使와 懇談을 交하고 또나자ー르佛大使의 漢口着으로 各國大使館과 折衝을 거듭하는等 蔣介石을繞圍한 外交團의 動向은 極히 活潑한바잇서 各方面에서 注目되고잇다

中北支兩會社 設立委員三、四十名

【東京電話同盟】北支開發과 中支振興兩國策會社設立委員은 政府와 設立委員長鄉誠之助男間에 協議를 進行하엿는데 大體委員數는 三、四十名程度로하고 그 配定은 政府에서 企劃院次長書記官長法制局長官과 關係各省次官約十名 民間側에서 貴族院議員五名 衆議院議員五名(民政二名政友二名小會派一名)其他 財界約十名으로하고 그人選은 貴族院은 木戶、有馬、大谷、三相、衆議院關係는 永井、中島兩相과 風見書記官長이 例에 當하고 財界方面은 鄉男에 一任하기로決定하고 來二十八日의 閣議까지에 人選을마치고 同日의 閣議에서 正式決定을 하기로되엿다

文官高等試驗受驗者 召集者에特例를設置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支那事變으로 召集된 文官高等試驗受驗者에 對하야 口述受驗資格에 特典을與하기로되어 法制局에서立案한後 樞密院에 御諮詢奏請의 手續을 取하엿는데 樞密院의 豫備審査도 終了하엿스므로 來二十七日의 定例本會議에 上程하고 支那事變으로 召集된者의 高等試驗資格의 特例에 關한件을 可決하기로 되엇다 從來의規定에 依하면 高等試驗受驗者로筆記試驗에 合格된 境遇에 同年의 口述試驗에 不合格된때에도 翌年까지 一年間口述試驗의 受驗資格이 保存되어 잇섯는데 今回이에特例를 設하야 筆記試驗合格者中 召集된者에 對해서는 召集解除까지 이資格을 存續케하기로된 것이다

銘酒 喜久松 キクマツ

謹告

本社는 春秋會의 決議에 依하야 四月二十六日附及五月一日附新聞을 各各 四頁식 減하야 八頁을 發行하기로 되엿슴니다。

朝鮮日報社

今日夕刊及臨時朝刊合八面

▲寫眞은 景福宮에열린 京城府主催 伊太利使節團歡迎會光景

伊使節團滯京第二日

景福宮에盛宴 總督·團長萬歲和唱

京城府主催의歡迎會

戰勝을 爲하야 또는 生命을 爲하야 싸호는 伊太利黑衫衣黨의 代表使節에 對하야 半島官民이 赤誠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는 京城府主催 一行歡迎大會園遊會는 櫻花가滿發한 總督府裏庭景福宮跡에서 盛大히 開催되엿다 歡迎式은 午後零時半 파우릇치團長以下一行을 慶會樓에迎하야 在京城官民을 代表하야 佐伯府尹이 一行歡迎의人事를 述하니 파우릇치團長은『이러케 우리가 各地에서 受하는 壓倒的 御歡迎에 對하야서는 나個人으로서나 또伊太利國民으로서나 반드시 이를잇지안흘것이다』라고 熱誠에 넘치는 謝辭가잇고 伊太利國歌를 吹奏後 南總督이『伊太利王國、에디오피아帝國萬歲』라고 發聲하니 參會의 約一千名이 이에 唱和하야 그喊聲은 陽春의 끗업는 天地에 울리웟다 이에 應하야 파우릇치 團長은『大日本帝國萬歲』라고 發聲하자 一同 또한 이에 唱和하니 實로 日伊兩國의 魂이 接觸할 感激에 뒤끌어섯다 어리하고 각기 樂行을 信號로 軍樂의 吹奏하는 日伊兩國의 行進曲裡에 餘興場에는 朝鮮色美麗한 舞踊이 開始되고 絕敬堂附近에 設置된 模擬店은 一齊히開店되어 櫻花가 눈과가티 떠러지는가운데 日伊兩國歡然의 交驩가되어 半島稀有의 國際的 且和樂한開催가되엇다

商工獎勵舘과 博物舘을見學

『伊太利萬歲』『우리나니萬歲』의潮水가든 歡呼를바드며 朝鮮호텔에서 一夜를쉰 二十四日의 伊太利使節團一行은 昨日까지의 旅塵도깨끗시 시처버리고 午前八時에는 朝食을마츤後 專門家들은各各 自己의分擔한 硏究問題의檢討에 着眼總督府及 民間의有力者로부터 朝鮮農林 産業通商問題에 關하야 約三時間동안熱心으로 各種의 事情을聽取하엿다 午前九時三十分 파우릇치團長以下 團員一同은 凜凜히 파시스트制服에 몸을團束하고自動車로 朝鮮호텔을出發 마친내今日은 日曜이므로 카톨릭敎會에 따라 먼저明治町의 天主敎會의 미사에列席하야 禮拜를보고 歸途에 나리보ー리數의 案內로 同敎會內의 啓星小學校의 少女로부터꽃다발을 바든後『잘잇거라』하고 日本語로 作別人事를 한다 同敎會가 日支事變勃發以來 皇軍의 武運長久祈禱를올리고잇는事實을듯고 至極히 滿足하야 敎會를辭하고 十時五分 南大門通의 總督府商工獎勵舘을 訪問 半島商工業의 飛躍的躍進을 縮圖한 舘內의 陳列을 視察하엿는데 다른랏다博士는 統計圖까지 熱心으로보고 또보고하엿다 十時四十五分에는 總督府博物舘을 訪問하엿는데 近代文藝復興의 發祥地에 生長한사람들인만큼 團員은 모두 專門的 知識을가저서 隨行하는外務省 小川書記官, 寺岡事務官或은 總督府의小田通譯官을通하야 案內하는藤田城大敎授에게 質問을連發하야 그다지 넓지도안흔舘內를 約三十分동안 詳細히 見學하고同十一時半 호텔에歸還하야 午前中의 日程을마추고 少憩하엿다

臣民體操에 一行도感歎

半島의全學徒의 胸中에 皇民精神을透徹시키고 健全한 身體를構築하고저 總督府가 考案制定自慢의 皇國臣民體操가 비로소 國際舞台에 紹介되는날이 왓다 盟邦伊太利의 使節團의 來京에 依하야 賓來케되엿다 京城府主催의 慶會樓에 歡迎會를마친 使節團一行은 午後二時十分 京城運動場에 到着하야 一行이 定의席에 着席하자 委員으로 伊太利쫘스포ー츠聯盟理事長인 부치博士는 最前線에 位置를 占하고잇는것이보엿다 佐伯京城府尹과 파우룻치團長과의 人事交換이 잇슨後 小學校兒童 千八百名의 活潑한 皇民體操가 開始되엿다 木劍을든 日本武士道精神이 깃드려서 躍出하는 律動이다 이를 熱心스러히 보고잇든 부치博士도 感心 그熱心한 硏究心에 各權威者도 자못 놀래엿다 繼續하야 女學生 五千八百名이 交代하야 女性美와 健康美를 자랑하야 華麗를招한다 스케일이 會場에가득히 展開되엿다 使節團一行이 奏行한 못솔리니 首相의메세이지에 展開된『光輝잇고 繁榮잇는 前途에向하야 日出하는帝國의 不撓不屈한上昇을 衷心으로讚歎한다』는 말은 僅一時間의 潑剌한스조츠의 一島小國民의 面에서도 可히推測할수잇다 그무엇보다도 生生한 半島의姿態를最後의 印象으로서 一行에보내고使節團은 이를膳物로 午後三時十分 運動場으로부터 호텔로向하야 少憩한後 午後四時十五分發 特別列車로 大野政務總監以下多數의 歡送裡에 一路新興滿洲國으로 赴하엿다

使節團代表會談 官財界의權威와

二十四日 午前八時三十分으로부터 約一時間동안 左記와가티 使節團中의 各方面의 專門家와 官界及 財界의 權威者와의間에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疲勞가甚함에不拘코 定刻에 面會하야

一、産業에關하야 下院議員工業勞働者代表 로돌프·봐커니氏와 穗積殖産局長, 田鑛山課長과의間에

二、農業에關하야 下院議員 農業勞働者聯合代表 안드니오、아게모氏及뷔스코리伯爵과 米穀所長 山本技師와의間에

三、通商貿易에關하야 商業者聯合代表 부솨博士와 賀田商議會頭、澁谷貿易協會副會長과의間에

四、財政、金融에關하야 金融保險聯合代表 롬발드博士와 水田財務局長、林殖銀頭取와의間에

日曜氣配

▲期米 臺灣側買物로 下落되엿는데 朝鮮産地의 少勢로 氣重어나 目前强含으로 人氣小堅 氣配七十三錢가량

▲株式 氣迷가기커 賣方傍觀이엿는데 玉整理續行으로 氣配軟弱

大新 三六、三五 東新 一三〇、〇〇 滿鐵 二三、三五

世界週史

英佛會談開催決定

英伊協定에 基因한 歐羅巴政局의 新事態에 對處코저 英佛兩國間에는 外交 軍事 經濟提携强化를 圖하고저 佛달라디어首相은 英政府의 招請을바더 來廿八日 본네外相과 함께倫敦을訪問 會談을開始케로 되엇다

新黨結成과內相活躍

影響된 現下의政局을 打開코저 末次內相은 議會法相等과 新黨을組織、近衛內閣으로하여금 依然 時局擔當의 衝에當케하기爲하야 舊昭和會系、國民同盟、東方會等 小會派의 革新派를 中心으로 政民兩黨의 解黨組織 包含한 一大新政黨組織運動에 着手活躍하야 朝野에 一大衝動을 惹起하엿다

近衛首相決意表明

近衛首相은 五月二日以來 病으로着席치못하야 政局에는 現內閣에對한 難關이 閉塞하는바 首相은 廿一日快癒한後 時局打開의全責任을 一身에지고 難局打開의決意를 表明하야 政局의不安을一掃하엿다

米海軍豫算成立

一九三八、三九年度米國海軍通常豫算은 去三月三十日上院을修正通過 下院에再廻付된以來 兩院協議會에서 審議를거듭하든바 二十一日에 意見一致可決을보앗는데 그通常豫算案은 總額五億四千六百八十六萬六千弗의 巨額으로平時豫算으로는 未曾有의彪大豫算이다

沂州를完全占據

沂州를 攻擊中이든 我軍은十九日午前十時十五分沂州西北角을 突破하야 同十一時에는全城壁을 完全히占據하엿다

佛伊會談正式開始

英伊協定成立後 佛伊兩國도會談케로되야 駐伊佛代理大使부롱덜氏는 廿二日키지宮에 챠노外相을訪問 에디오피아併合承認問題、地中海問題其他現狀維持策에 對하야 第一回會談을 開始하엿다

蘇聯聯盟脫退說

英佛兩國이 伊太利에 接近함을따라 쏘베트政府는 不遠間 國際聯盟을 脫退하리라는說이 外國에傳布되고잇는데 쏘聯外務政府는 廿二日 그런事實은 考慮할 餘地도업다하야 風說을否認하엿다

南北新政府의 司法權尊重

司法省秘書課長渡支

【東京電話同盟】支那의 占領地域의 司法裁判權 整備確立에關하야 帝國政府는 居留民의 權益을 保護하는同時에 列國의權益을 尊重하는立場에서 領事裁判權撤廢를 行하는 方法에依하야 臨時政府司法部의 完全한 發達을 熱望하고잇는데 秩序維持의 根幹이되는 司法制度의 整備에關하야 充分한 注意를拂할 必要가잇스므로 司法省秘書課長 船津宏氏는 五月中旬出發 約三週間의 豫定으로 南北新政府의 司法部의 發達狀況을 視察키로 되엿다 但帝國政府로서는 新政府司法部의 發達에 關하야 援助를주거를 악기지안는데 獨立性을 尊重하야 容喙的 態度를取함은 一切排斥할方針이다

各省政務官 支那視察에出發

【東京電話同盟】支那에關한 一般認識이 紹與되고잇는此際 各省政務官에 視察目標를 提携코 一時에 支那視察에 發程하려하고잇다 먼저 池崎文部參與官이 現地 修學完成에 一層努力키爲하야 二十八日 南中支로 出發할을 비롯하야 工藤、山本厚生 兩政務官도 傷兵及 現地의 退役軍人 職業紹介를 視察키爲하야 事務官二人과함께 出發하게되고 助川 農林參與官、木暮、佐藤兩商工、田尻鐵道、中村大藏各省 政務官도 今月부터 來月에亘하야 一個月前後豫定으로 出發하게되엿다 昨年부터 現在까지에 太田大藏、入角拓務、今崎文部 加藤陸軍 各政務官은 이미 現地를 視察하야 各省當局의 支那에對한 認識에 急激히 昂揚되고잇다

東亞實業俱樂部 發起人會開催

【上海二十二日發同盟】維新政府實業部長 王子惠氏 日本上海商工會議所會頭 吉田政治氏等의提唱으로된 東亞實業俱樂部는 드디어 二十二日 午後四時半부터 日本人俱樂部에서 發起人會를開催키로되엿다 右俱樂部는 維新政府成立을 期하야 兩國實業家相互의 智識交換親睦을 圖함을 目的으로하고 事變後 活動을開始한 市商會와 連絡을圖하야 近近日日實業家를 網羅하려는 計畫을 進行하고잇다 그리고 右俱樂部는 實業方面뿐만아니라 文化方面에도 注力하야 文化에 依한 親睦을期待하고잇다

電力國家管理案 實施準備局官制公布

【東京電話同盟】電力國家管理案實施準備局官制는 五月一日 公布卽日 施行되여 이와함께 局長以下各人事도發令 卽時 準備事務를 開始하게 되엿는데 이와同時에 日本發送電株式會社設立委員도 五月一日附로 任命될터로 그人員은 約三十名으로하고 委員長에는 永井遞相自身이 이에當케로되엿다

人事·集會

▲難波照治氏(光州府尹)新任人事次來社

▲寒松友光氏(貴族院議員)入京人事次來社

人面鍼

◇佛伊協定成立後는 獨英伊交涉을 開始하리라고。

◇그야말로 歐洲外交界에 一大變化가 生할모양。

◇그러데 他方 漢口서는 英大使의 斡旋으로 日支和平調停說이 流布。

◇和平은 바란는것 그러나 어떤 條件으로 和平하는지가問題의 焦點。

◇朝鮮特産品展覽會가 明日부터 開催한다고 四方에서 滿都人氣를集中。

◇나는 韓山모시를 사베 너는 智異山 木器를사라고。

◇보고、사고、그리고 鑑賞을 구경하고 봄하로를 滿喫할만한일。

◇보서라 모혀라 朝鮮特産品展覽會로。

新京測量學院生徒募集

科外科·傷害外科·內臟
金晟鎭外科医院
醫學博士 金晟鎭
京城府鍾路三丁目一三三番 電話光化門七一〇九番

金儲 穀物膨脹機 カタログ呈
石櫻機械製作所

胚芽純 所究研養榮社式株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平和堂 一劑十円

在庫豊富
内燃機界의覇王 於農林省比較審査中位入選
ヤンマーヂーゼルエンヂン
2HPヨリ120HP迄
ヒューガルポンプ 2吋ヨリ12吋迄
型錄進呈
古賀商會 平安南北道總代理店

朝報案內
自動車 運轉手資格認可 京城
讓店
支局長
引伸現像

伊·獨·日 親善圖畫募集
詳細는學校又는菓子店에서알아주서요
宮內省御用達
森永ビスケット 詰合 모리나가 비스켓도
賣行·品質·東洋一!

マクニン 蛔虫卵 虫退治
藤澤友吉商店

第貳回 新築家屋賣買開始
朝鮮建築社 京城府鍾路二丁目永保빌딩三階 電話光化門一三四九番

京城中等學院生徒募集
京城府林町八二

二十五日로부터 二十九日까지
新柄 크레ー프데신 特價大賣出
一碼에貳圓均一
二階賣場
ウォボカ 京城本町

待望의朝鮮特産品展覽會明日開幕

本報革新記念日卜하야 新綠下에展開될盛事

午前十時府民館에서嚴肅한開會式

錦上添花 鄕土演藝도同時開幕

지난일월이십오일로서 지령(紙齡)천오백을 마지하게되엇스며 명이십오일로써 혁신오주년인 조선일보 재생(再生)의날을 마지하게되는 본보는 신년벽두에 사고로써 이거듭하는 이대경사를 자축하며 아울러만천하독자여러분께 이기쁨을가치하기위하야 조선특산품전람회개최, 조선향토문화조사보고, 세계현세지도증정(世界現勢地圖贈呈)의 삼대사업을발표한바잇섯다 여기에대하야 우리와뜻을갓치하는 만천하독자여러분께서는 우리와가튼 찬성과 끔임업는원조편달을 앗기지아니하섯스며 또본사로서도 미력이나마 거사일치(擧社一致)그후의의 만분의일이나마 보답하기위하야 전긔한 전력을총동원하야 복잡수한 소기의목적에 매진한결과 향토문화조사는 지금지상으로 계속보고중에잇고 현세지도도 멀지안어 끔임업시 본보애독하야 주시는 독자여러분의 손에드리게되엿스며 특산품전람회도 만단의준비가다되여 예정과가티 혁신오주년기념일인 명이십오일의 조흔날을 택하야 호화로운장막을 열기로되엿다 이날은오전열시 부민관중강당(中講堂)에서전람회개회식이 엄숙하게 엇슬터로 끗나는대로 이식에참석하신 초대자여러분을 곳전람회진열장과 연예장으로 안내하야 관람케한다음 오후한시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기로되엿다 전람회기는 오월사일까지 열흘동안으로 관람시간은 첫날을제하고는 매일오전열한시부터 오후여섯시까지로되여잇다 더욱 이모임을후원하고 성대히하기위하야 회기중에 향토연예대회(鄕土演藝大會)를열기로되엿는데 제일연예장은부민관, 제이연예장은 조선미술품제작소자리에 가설한무대로 제이연예장에는 매일오후한시부터다섯시와 오후일곱시부터열한시까지 하로두번식 향토연예가 잇기로되여잇스며 제일연예장인 부민관에서는 사월이십칠, 이십팔, 오월이, 삼, 사일닷세동안에 연예대회가 열닙니다

鄕土演藝入場券 本社庶務部에서豫賣

향토의냄새가 가득찬가지가지의 향토연예가 이와가티 한자리에서 볼수잇는기회는 극히드문일이만치 부민관과 가설무대의연예대회인기는 지금부터 고조되고잇서 혼잡할것이므로 본사에서는 그입장권을 모두 예매(豫賣)하기로되엿스므로 본사서무부(庶務部)에서 사기바랍니다

會場概況 展覽會場 第一演藝場 第二演藝場

명이십오일로서 호화의 장막이내리는 조선특산품 전람회장은세곳으로 난호아잇다 첫재는 진열장인데 전조선 방방곡곡이 구석 저모퉁이에 숨어잇서 향토색이농후한 특산품 칠백여종을일당에 모혀노핫다 일반이관람할진열장은본사사옥 대강당에특설하엿다 삼층계단을 올나서자 바로인쇄방이 광산관(鑛山館)이다 꼴-드·랏쉬의 물결을타고 욱일승천의 기세를 보히고잇는광업조선의 현황을 요연케하는곳이다 삼천리강산 업는곳이 업다시피하는 금,은,동,철,흑비롯하야 중석(重石)흑연,무연,운모등가지 가지의 광석 표본이 진열되여잇다 한거름드리서면 농산품 공산물 해산물등 가지가지의 특산품을 진열하여 노흔곳이잇다 진열장소는 옛조선의 호화로운건물을 상징하드시 오색이 찬연한 아름다운꾸미가 흘러넘치는 설계로되여잇고 칸칸이막어노아 십삼도별의 진열판으로 되여잇다 본래강당무대에다 참고관(參考館)을두어 사십여종의 참고출품을 수용하야노핫다

전람회장인 본사옥을 가운데두고 좌우에 제일연예장(第一演藝場)과 제이연예장이잇다 향토색이 농후한 특산품을 보신 눈에 향토의풍취가 엉이 얼크러저잇는 향토연예를 마음껏 완상하실 절호한장소이다 제일연예장인 부민관에서는 오는이십칠 팔양일에는 판소리대회가열리고 오월이일에는 옛춤(古舞踊)대회가잇다 삼일과사일에는조선팔도의 여류명창(女流名唱)을

한곳에 모혀 매치 광굴(競唱大會)를 하기로되여잇다 이곳을떠나 다시발을 전람회장본관으로 옮기면 리왕가의 조선미술공예작소자리에 만국기휘날리는 가설무대(假設劇場)이 제이연예장이다 노천극장 민속노래의 일대페-젠트가 전개될곳으로 전람회기를통하야 매일두차레식 봉산탈춤, 걸궁패, 산대도감, 꼭두각시, 짠지패, 박춘재재담(朴春載才談)등가지가지의 흥미백파-센트, 꼬옥절로흥겨운판으로 우승의 도가니가될곳으로 예상된다 이와가티 전람회장을 중심으로 태평정한모퉁이는 전람회로 연예회로 지러가는벗꼿을 뒤이어 장안의인기를 한손에 걷잡어 올것으로보인다

李王同妃兩殿下 和信에行次

황송하옵게도어매상의분부 朴社長以下感激恐懼

리왕 동비량전하(李王 同妃兩殿下)께옵서는 어십사일 종로네거리의 위관인 화신(和信)백화점에 특히 행차하옵시엇다 이날아침에옵시 량전하께옵서는 조전(篠田) 리왕직장관이하 제직원의 뫼심을바드시고 화신정문에 어도착하옵시니 화신에서는 박흥식(朴興植)사장이하 간부의 어출영을 바드시고 박사장의어안내로 "엘레베-타"로 오층에 오르시사 조선물산부(朝鮮物産部)를 보신다음 귀빈실(貴賓室)에듭시와 박사장과리전무(李專務)에게 배알(拜謁)하압시고 박사장으로부터 화신의현황상세히 아뢰인다음 사장의어선도로 오층에오르시사 장안을 어전망(御展望)하압시고 다시내리시어 오층조선특산품부, 삼층수예품부 이층금은부 포목부등을 가추살피시옵고 황공하옵게도 업무의 번창을 어격려하시는말삼을 나리시고 동삼십오분에 사장이하 꽁꾸갑겨리에 어환송하압시엇다 량전하께옵서 조선안의 민간사업을 어시찰하옵신 것으로이번이 처음이시라고 배승되는만치 어날의행차를 밧드러모신화신은 사장이하 전직원총업원까지 무상의광영에 꽁꾸감격하여마지안헛다 량전하께옵서는몃가지 물품까지 어매상(御買上)의 분부가게시와 거듭하는파격의 광영에 감격하엿다

朝鮮特産品展覽会紀念 全朝鮮鄕土演藝大会

↑鳳山탈춤의한場面

↑韓成俊氏의朝鮮古典舞踊의포-즈

民俗藝術大페-젠트

第二會場 本社左隣空地假設劇場

山台都監 出演 李春植(指揮者) 金星泰 金學先 鄭演奎 石元順 李允西 金寶得 金德根 金光彩

鳳山탈춤 出演 李東碧(引率者) 金景錫 嚴明花 金守正 金柳色 梁錫鉉 方永煥 金振玉 金眞淑 韓相健 金錦仙 李潤華 金學元 羅雲仙 金成振 李國權 延學鵬 金明根 韓周弘

꼭두각시 出演 李元明 指揮로 八人姓名未詳

盲人才談 出演 朴天福 金光石

짠지패 出演 金泰運 卓福萬 李命山 李命吉 白榮室 金在先 朴鎣先

걸궁패…農樂 出演 方千孜以上慶北 金在弘 吳帝善 金五星 韓一成 宋昌峯以上全南 崔晚榮 趙熙範以上京畿 金泳壇外數人 各地의 精萃를 뽑아서 一團을構成

朴春載才談 出演 朴春載 金興烈 金泰運

會場案內

第一會場 (夜七時開演)

▲四月廿七日 판소리大會

▲四月廿八日 沈淸傳 春香傳

▲五月二日 古典舞踊大會

▲五月三、四日 八道女流名唱競唱大會

第二會場 自四月二十五日 至五月四日

晝 午後一時부터五時

夜 午後七時부터十一時

舊樂歌舞大페-젠트

第一會場 本社右隣府民館大講堂

八道女流名唱競唱大會 出演 成珊瑚珠 金羅 金順姬 成鏡 全花鮮 慶尙 嚴明花 黃海 李素姬 慶尙 金碧香 成鏡 金碧顯 平安 裵雪香 慶尙 洪錦花 忠淸(以上地方) 市內各券番總員

古典舞踊大會 出演 韓成俊 金曉汀 金周嬋 李南浩 金德鎭 金季粲 韓立分 李畊玉 金萬三 李秀松 洪淑淑 金光彩 趙燕玉 金明花 金晴양 崔讓成 韓英淑 金世俊

판소리大會 出演 李花膿 朴珍紅 趙錦香 金丹粉 白萬金 韓蓮花 方龍鉉 李剛化 趙孝全 張紅心 李東白 金昌龍 林芳蔚 金鍊守 朴綠珠 金如蘭 外數人

入場料 第一會場 五十錢 讀者 三十五錢 第二會場 三十錢 讀者 二十錢

鄕土藝術 歷史的動員

寫眞上으로부터 李東白、宋萬甲、韓成俊、金昌龍、林芳蔚、朴綠珠、丁九燮、金演洙、金泰運、朴春載、

主催 朝鮮日報社

奬忠壇公園서 怪屍體發見

身元을方今調查中 음독자살로추측되어

어십사일 오전열한시쯤 부내 장충단(奬忠壇)공원안에 잇는앵교(櫻橋)상류 약삼백미돌 되는곳에 삼십사오세가량된 일본내지인남자의 괴시체가 나타낫다 전기시각 산보하려왓든 사람이 개천놀닥고 누어죽은 시체를발견하고 곳본정서에 알려왓는데 그남자허리며 속에는 몽돌속에 너흔현금 구십원과 엠파이어 「크롬」회중시계(六四八二五〇號)한개 기타등전을 잡된 사분지일가랑찌저진 손수건 하나가 나왓을뿐이고 그의신원을알만한것은아모것도업다 그런데 이남자의 죽은원인의인상이업는것으로보아 독약을먹고 자살한것이나 아닌가한다는데신분의의심에 「사루마다」를 입엇는것 안경을쓴 자국이 잇는것으로보아 한때신개나온「기보우엔」재지게 모물고 잇는 미성년자(…)가 아니가하야 여러번면으로 감정하엿스나 현림이흘리는것과 기름종이 들어잇다고한다 그러나 배신된는 것을 가진 사람이 무슨연고로 그곳에서죽엇는지알수업서서 지금 그신원과 사인을조사중이다

曲馬團女優 投身自殺未遂

발솔은헷스나산걸이망연 龍山署에서保護檢束

어십사일밤 여덟시반경 한강인도교우에서 투신하라는 여인이잇슴을 행인이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얏는데 아여자는 곡마단배우 한정숙(韓貞淑)(二〇)으로서 어렷슬때부터 곡마단에따라다니가다 외대를참지못하야 지난달중순에 곡마단이 경성공연을할때 여기를 탈출하야다가 동대문서에 보호검속을 당하게되엿는데 동서의호의로 여러천 총로사정복 모상점의정원으로 직업을 어더주엇스나 일상생활을 한다는이유로 상점에서 해고를 당하엿스므로 갈곳이업서헤매다가 기구한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고 투신자살하려던것이라는데 용산서에서는 당분간 보호검속중이다

私立初等學校 懇話會解體

別個로校長會와 平教員團體組織

서내사립초등학교(私立初等學校)의 연합기관인 간화회(懇話會)에 교장만어 회원될자격이잇서서 일반교원의 참여가허락되지 안음에 불평을 품고 평교원들까지 회원될 자격을 달라는 지정서를 작성하야 여명교원들의 련서로 간화회에 제출하엿다함은 임이보도하엿거니와 이문제는 시내의 초등교육게에 중대문제로 그거취가 여러질 지극히 주목되던바이어 떠케될지 이것을 결정할 간화회의 총회가 지난이십삼일오후두시부터 시내가명(加明)보통학교에서 열렷다 평교원을 간화회에 참여시키는데 반대하는편과 찬성하는편의 의견이 대립되여서 장시간토의하다가 드듸어 간화회를해소(解消)해버리고 한거름나아가서 사립초등학교장회(私立初等學校長會)라는 새단체를 조직하고 평교원은 평교원대로 어떠한형식의 단체를 별개로조직하기로 결정되엿는데 역사기픈 간화회는 그직서에서 해소해버리고 잔무처리를 한승원(韓承源)이제현(李濟鉉)양씨에게 맛기고 새로히 교장회의창립을 보게되엿다 그리하야 평교원단체는 오는이십팔일에 교장회의입시총회를열고 여기에서 발기하야 창립을시키기로되엿는데 오래동안 현안중에잇던 사립초등교원들의 간화회참여요구는 이로서 낙착을 보게되엿다

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노래동무(二) 朴景姬 ▲六時二十五分 童話 明倫幼稚園 安貴福 ▲七時三十分(平) 室內樂 宋浪夫 라디오 ▲八時(東) 라디오드라마 달아달아 配役 金福姬…洪開明、姜玉…金蓮英、父親…韓一峰、女給…李貴卿、解說 金鮮英 ▲八時(平) 라디오드라마 ▲八時三十分 歌曲 金素姬、金錫鈞、洋琴 金相淳、大笒 金永根、長鼓 金一羽 ▲九時 古談 朴一笑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童話劇 ▲六時二十五分 講演 ▲七時三十分(東) 表彰 ▲八時 招魂祭

天氣豫報

今日、明日오면晴 一時雲이며 京畿全幽도갓다

昨日最高 一九度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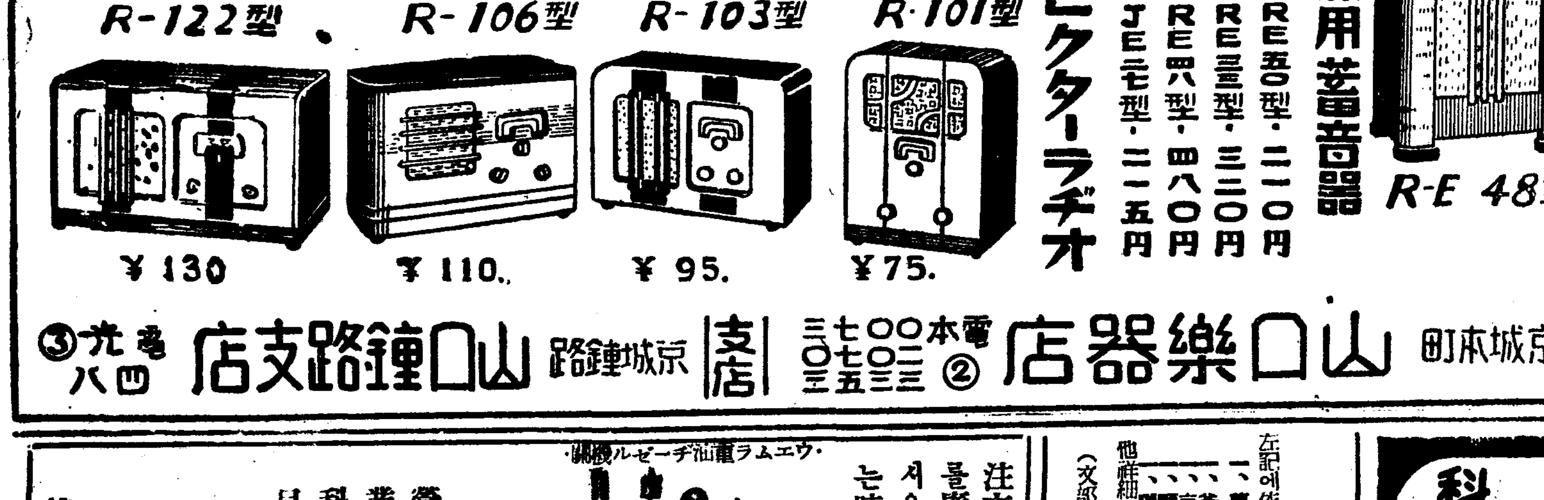
同 最低 九度八

今朝最低 六度五

今日正午 一四度七

色鉛筆

봄이한때라면 꼿도 한순간이라 오늘은 졀하야 일요일이니 마음것들을 즐기라 ▲꼿을차자 들로 산으로 강변으로 일가족이가 추어 산책을함은 또한 권상할바이다 한겨울동안 온돌방에 들어잇든후 리네살림사리로는 더구나할수한일이다 ▲날보나 날븐산피들의 또한들의 큰기운을 마시어 사람의기개를 크게 넓게 길르는 인간생활의 무한한발전을 위하야 가장 필요한 일일것이다 ▲딴파하늘에서 엇든바 유신의양식이 잇다는것을 생각할때 대자연이 내리시는 정신의 양식이잇슴을 이즐수잇스랴!



京城本町 山口樂器店 電本② 二〇三〇・二二三五・三二五七
京城鍾路 山口鍾路支店 電光③九八四

陰○ 小感症 セープレピン 局部塗布 男女共用
適應症 陰○不良 不感症・勃○不全 老年性機能衰弱 神經衰弱性障碍
中井醫學博士創製
本劑는芳香性크림狀으로 少量式을 局部에塗布하면 有効한強精的治療作用을發現하는特性을有함。習慣性副作用이絶無함(醫療用)
價格 二〇瓦入 二圓五十錢 五〇瓦入 四圓八十錢 百瓦入 七圓五十錢 送料內地十錢其他四十五錢
發賣元 合資會社天一醫藥堂 東京市青山大通三丁目電停前 振替東京一九二四番
(文獻進呈) 有名테파-트藥品部에잇슴
(代理店)大阪東區平野町丹平商會 東區博勞町高橋分店 京城南大門通 新川藥房 京城本町木村藥房 大連浪速通日本賣藥會社 其他著名藥店有

코나쁜이는必히全快 ▲頭腦도明快히됩니다
★코가막혀 답답하고 콧물이흘러나오고 냄새를모르는등의 고통까지의 피곤하여서 정신이 명쾌하지 아니하고 頭痛이 잇고 일의 能率이 나쁘다고 ... 本劑는 中毒性 習慣性이 업고 ... 코나쁜사람이나 곳本劑를써서 ... 治療해주시요
試驗用미나ト式鼻藥布를 四錢切手十三枚封入하여申込하시요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堀留町三ノ七 ミナト製藥東京營業所
價格 七日分 〇,四〇 廿日分 一,二五 重症用 四,五〇 經濟用 二,〇〇
有名藥房테파-트에잇슴
ミナト式

警察官(講義合部全書)
鮮滿警察學會

日ノ丸
美味營養菓子
쮸-쮸-종달새 질거운 풀바테서 맛잇는 日ノ丸
勸業人 一個 五錢
陸軍省御用達 キンツトアメ本舖 立花製菓株式會社

山葉オルガン
兒童들도곳칠수잇는
音階速習器付
山葉オルガン 定價金四拾圓
가다로구進呈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丁目 電本局二四八五

信券
小西證券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京城府樂園町 電光二四五二
八院室全部溫房
包莖手術每日施行

生徒募集
左記에依하야第二次生徒募集함
一、募集人員 第一學年六十名 第二學年三十名第三、四學年若干名
一、京城特設事務所 京城府鍾路松山旅館
一、釜山設置事務所 釜山驛前
一、願書締切期日 自四月十七日至四月二十九日
一、學校所在地 廣島縣吳市
(文部大臣認可) 財團法人 興文中學校

最新型五馬力一八馬力揚水機界의王者 ヤマ式ヒユーガルポンプ
營業科目
ゼット重油機關 ウエムラ重油機關 ヤンマー重油機關 クボタ輕油發動機 トミタ輕油發動機 ヨシタ輕油發動機 マスタ輕油發動機 ホーオー式籾摺機 ホーオー式製粉機 ホーオー式脫穀機
マルヤ式ヒユーガルポンプ 中野式無水精麥機 天東式無水精麥機 佐竹式無水精麥機 中央號穀物乾燥機 中央式丸六型製粉機 中島式自動製粉機 中央式精米麥機 各種ゴムロール、ベルト 諸機械直輸入製作
注文・特約・殺到!! 奉仕的大發賣優良한機械를廉價로購入하시라면 먼저弊社로御照會하시읍!(勿失此好期)・아직도特約店未定地는時急申込하시읍
動力農具卸元 合名會社 中央商工社營業部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京城驛前) 電話本局(2)四七三五番、振替京城六一二五番 工場電話本局(2)一五二六番、振替京城一九六七二番
特約店大募集、御照會次第見積書送呈

公益無視한處事에 百餘名面民連署로陳情

迎日郡只杏面民代表者上道

【慶北支社發】 영일군지행면(迎日郡只杏面)면민대표 림봉옥(林鳳玉)김병대(金炳大)정창곤(鄭昌坤)등 삼씨는 면협의원(面協議員)소방조(消防組)그외 면민대표 백여명이 연명한 진정서를 휴대하고 어제상경 상도하야 도에 진정하엿는데 지방파와 산림피해를 역바하고진정한비가 잇섯는데 진정의내용을 보건대 첫재는…면유림 산불명주(枳實)부당매매취소(不當賣買取消)건인바 면소유림에서 생산되는 명주는 한약재료(漢藥材料)상에 전조선적으로 널리이름이 노파저잇는데 년사액이일천이、삼백여원의 생산이잇는바 종전에잇서서는 공매입찰에의하야 공매하던것을 그면 면장은 작년봄에 돌연히 종래방침을 변경하야 공매에도 부치지안코 암암리에 그면유력자정규영(鄭圭永)에게 십개년간에 이천오백원으로일시 매각하엿스므로 면민의손실이 약사천여원에달하게되어면민의불평이 날로노파가며일반의공기가 험악함을 보고십개년매매계약을 해약하고다시 원에 사매계약을 하게되여면민에게 밋치는 손해는적지안타고 하며

둘재는…면유림불방지인데장기(長期)음아메잇는 면소유림야온그면 삼천여면민의 직접간접의식량고인 삼백여정보의 전답을보호하는 방수재방이며 또는 방풍 경치 고고상(考古上)및면기본재산수입의 일대재원을 산출하는관계상 일조유서의 보존림인바그면 면장은이런 절대적조건도불구하고 돌다적으로 약오천여평쯤되는 입목(立木)을 자기친한사람에게 허가하야 채벌한사실이잇서 일반면민은 풍수해를념려하야 어와가티 면민의결의로써 방수재방축조와부당매매를 취소하야 주기를 진정한것이라한다

面長擁護派와 反對派가對峙

별당파가티 면민의결의로 면장의부당행위에 대하야 면민의대표가 상도하야 도당국에 진정한바가잇섯는데 면장의지배를밧고잇는구장측(區長側)은 이십일일 구장회를 개최하고 면장은부당매매한사실이업스며 림야를 남벌한사실이업다고 면장을 옹호하고저 서면에면민의 날인을바다 재차도군당국에 진정할려이라는데 이로말미아마면장반대파와및 옹호파가서로 노골적으로 대립되여 정면충돌을 위기에직면되여잇서 일반은 면발전상장래를 극히념려한다하며 금후의도 군당국의태도를 주목중이라한다

五千餘圓으로 多美小校擴充

【咸二浦】 울산군다미심상소학교(蔚山郡多美尋常小學校)는 소화사년에 창립되어 사년제로 실시하여오든바 지방교육상으로 보아 불완전함을 통탄하야 작년 시월경에 학교면장기성회를 조직하고 적극적활동을 게시하는동시에 기성회장림봉석(林鳳錫)씨외 명분노력으로 거금 오천여원의 기부금을모집하고정식인가를 어든결과 금춘신학기부터 오년제육학급을 실시케되엿스며 기부자의씨명은다음과갓다

金榮濟六百圓▲[illegible]五百圓▲金秉希三百圓▲金秉數二百圓▲百圓式 鄭化鳳▲林能鳳▲林[illegible]▲林秉瑀▲金[illegible]▲金東演▲金東奭(百圓以下略)

電線工夫感電 全治三週의重傷

【慶北支社發】 지난이십일일오전 열한시경 남선합동전기대구지점(南鮮合同電氣大邱支店)공부인관마(?)(二二)는 동료수명과함께서 대구전정(田町)신흥관(新興館)아페서 전선공수리중 고압선에감전하야 안면우편을동에 전치삼주의 중상을 입고 대구동인의원(大邱同仁醫院)에입원치료중이라고한다

平南小學校舍全部를 煉瓦建物로指示

衛生經濟的見地로有利

【平南支社發】 평안남도학무과에서는 금년중 신축하는 소학교의 건물을 도시나 지방을물론하고 전부련와(煉瓦)의 교사를 건축하기로한후 각부군면게관청에통첩을 발햇다

지금까지 지방에서는 대부분이 목조건물이엇섯는데 부패가 심하고 막대한 수리비가 들뿐아니라 아동의 위생적견지에서도 련와제의 교사가 절대필요하다는것을 간파하기때문에 목조교사를 포기하고 련와제교사를 금년부터는 신축하기로된것이다

八公山火災 二十二日에鎭火

【慶北支社發】 기보=작보한 달성군팔공산(達城郡八公山)대산화는 지난이십일일이후 맹렬히연소하야 일시는 매우 위험한상태에 이르럿든바 지난이십이일 오후한시경에이르러 겨우 진화하엿는바 연소면적은 오백오십여정보(오천정보리?)이라고한다

京水뻐스顚覆 滿載乘客無事

【永登浦】 지난이십일일오전 시 부내공평정(公平町)육십팔번지 경수자동차부(京水自動車部)소속 대형『뻐스』경사천백오십호에 승객을만재하고 운전수류동희(劉東熙)(二〇)가 운전해가지고 수원서경성으로오는도중 부내 영등포정(永登浦町)『기린맥주』회사압 언덕에다다럿슬제 돌연히『빵크』가되며 차체가전복대파되엿는데 다행히 승객중 한사람의 부상자도 업섯다한다

金化咸德祚氏 頌德碑除幕式

【金化】 김화군암정리함덕조(金化郡岩井里咸德祚)씨는 본시평강(平康)사람으로 십여년전에김화에이주한후 상업에종사하야지금에는 수십만원의 재산가라는데교육사업에 성의로써 원조하고활동하므로 충송이 자자한터이며 동리빈민에 대해서는 사정에의하야 구제하여줄뿐아니라매년 세말불당하야 피세할만큼쌀과 돈을논하 주어왓스므로동리칭송이라는 충송을 듯게되여서다 동리몽혜자(洞里蒙惠者)오십여명은씨의 송덕비를 세우기로하고 활동하야 이십이일오후삼시반에제막식을 거행하엿는데 그후에는 유흥관료정(裕興館料亭)으로 자리를옴기여 성대한축하연이 잇슨후 폐회하엿다 (사진은 함덕조씨)

地方人事

▲李左珪氏(天安醫院長)開業人事次本社天安支局來訪

犯行後三時間만에 傷害强盜遂逮捕

大邱東雲町事件後報

【慶北支社發】 지난이십이일밤열한시반경 대구동운정(東雲町)에서 부부두명에게 중상을입히고 도주한상해강도(傷害强盜)사건은 즉시 본보에보도한바이나 이제 그상보를들으면 다음과갓다

이십이일밤 열한시오십분경대구부 동운정일백팔십팔번지 잡화상(雜貨商)소농경차(小濃慶次)(三)씨집에서는 막철시를 하고나니 담배(煙草)를 팔라는소리가나기에 담배는팔지안는다고하니『카라멜』을달라고 문밧게서 소리를치는바람에 소농씨의처소농도메노(小濃トメノ)(三)가 점포문을열어주니 일견 이십세전후되는 괴한이들어와서 지갑을 내는척하고 품에서예리한 소도(小刀)를 내여들고『돈을 내노라』고협박하자 이에놀랜 전기『도메노』가 겁결에 『오도—상』하고 소리를치자 방안에서자고잇든 소농씨가 놀래일어나든것을본 범인은 그칼로 여자의두등을찔러 혼도케하고 다시방으로달려드자 소농씨가일어나 범인에게 역습하는바람에 그손에 경상을이피고 그대로도망질을처버렷다 이소동에 린근사람이 모혀들어 그부근에잇는 동운정파출소(東雲町派出所)에급보를하엿는바 대구서에서는 즉시비상소집을하야 서내외를 물샐틈업시 뒤지엿든바 마침내범행이후 불과 세시간만인 이일오전두시경 부외 신암동(新岩洞)지점 금성관(錦城館)에서 호유중을 임검간대구서 삼중야(三重野)부장과 강(姜)순사의손에무난히 체포되엿다한다

犯人은前科二犯 被害者經過良好

이사건의 범행현장은 동운정파출소에서 약이백메돌박게 되지안는 대로변의 집인만치 그범인은 대담한전과자가 아닌가하고 그뒤를추궁하엿든바 그는절도(竊盜) 강도(强盜)각일범의전과자로 전라남도령광군법성면진내리(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김상갑(金尙甲)(二七)으로 십칠세때에 절도로 징역일년 이십세때에 강도죄로 징역오년을바다서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복역을 마치고 지난이월이십이일에 출감하야 대구상성회(大邱常成會)에서 보호를 밧고잇든자이라고하며전기피해중 소농도메노의상처는뒤등으로부터 늑막(肋膜)에달하는 중상으로 내부출혈이심하야 일시는 매우그생명이 위독하엿스나 응급치료한결과경과가 조타고하며 방금 대구도립의원(大邱道立醫院)에 수용중이라고한다

藥業商大運動會 五月一日첫空日에

開城府民의年中行事

【開城】 오는오월일일에 개막되는개성약업조합(開城藥業組合)대운동회는 식흥하는 약도개성에 절호한떄절로 시민의인기를 집중시키고잇다 더욱이날은 일요일이자 공휴일(公休日)이여서상점에서 고달프게노동하든 점원들이 축복바든 해방일이라하야 벌서 그날을 이날을 학수고대하고잇다한다

祝朝鮮特産品展覧会

犧牲奉仕的事業

咸興商議所會頭 林良作

今回朝鮮日報社에서 紙齡六千號를 算하며 또革新五週年을 當하야 어떠한記念하는 意味로 全朝鮮産業展覽會를 開催하게되는것은 實로 時宜에適合한 行事라고생각한다

朝鮮日報는 朝鮮에잇서서 朝鮮文新聞의 白眉로서 恒常中正 [illegible] 그우에도 時代를 一步압선 論陣을 펴고잇는것은 우리들이 가장敬服하고잇는배다

現下朝鮮에잇서서民心을 「리—드」하는데는 特히朝鮮文新聞의 健全適正한 報道에依함이 極히 만흔것이다 이러한때에 全朝鮮最大의 購讀勢力을 가지고잇는 우리朝鮮日報의 責任이 重大함을 敬感하는同時 그發展隆盛을 비러 마지안는다 이번에主催하는事業은 純然한產業關係로서 非常時局아래 特히産業報國의 切實한 必要를느끼고 이가티 莫大한犧牲을 不惜하고奉仕하는 貴社의 한거름압선 指導精神과誠意에 對하야衷心으로 敬意와謝意를表하는배다 (寫眞은 林良作氏)

貴報다운行事

咸興 張潤河

朝鮮民間言論의 雄으로 多年間 朝鮮社會의 木鐸的 任務를 다하야온 朝鮮日報社에서 陽春四月을 卜하야 紙齡六千號革新五週年記念事業으로 朝鮮特産品展覽會를 開催하는것은 戰時體制下産業의 發達이 要求되는此際 가장意義深大한 事業이라고 하겟습니다

元來朝鮮의 民間言論機關은 民度와 周圍의 特異性에 依하야 苦難과 荊棘의 길을 밟게됨에도不拘하고 貴社에서는 오래동안 苦鬪奮戰으로 紙齡에 잇서 六千號또다시 革新五週年을마지한다는것은 朝鮮社會에잇서 一種의 奇蹟과 가튼 壯한事實이라고 하지안을수 업습니다

이제 自身의 長久한苦戰을 記念코 將來의 發展을 期하는 意味에 잇서 現下時局下 가장 必要한 朝鮮産業의 發展에 資함이 至大한 特産品展覽會를 精力과經費를 不惜하고 開催한다하니 가장 朝鮮日報다운行事라고 하겟습니다 마지막으로 國際政局이 多端한이때 民間言論의 雄인 貴報의 前途에 一層빗나는 압길이 차저오기를 바라는바입니다 (寫眞은 張潤河氏)

指導精神의具現

咸興商工會長 金達林

今般貴社에서 紙齡六千號革新五週年을마지하야 記念事業으로 壯한 朝鮮特産品展覽會를 開催한다함은 衷心으로 敬意를表하는바입니다

貴報가 過去二十年동안 가진 苦難과風霜을겪그면서 社是로 定한바와가티 各方面에 銳意努力하야온데對하야서는 더욱感謝함을禁치못하겟습니다 方今 內外의時局은 더욱多端하며 國力充實、生産擴充이 切實히要望되고잇는此際 이러한指導的精神의 具現으로 特産品展覽會를 開催함은 가장時勢에 適合한行事가 아닐수업스며 그裨益됨이 絶大할것을 確信합니다

特히 莫大한經濟的精神的犧牲을 앗기지안코 勞費하시는 貴社의이盛事에 거듭萬腔의敬意를表하는바입니다 (寫眞은 金達林氏)

무서운부인병 속히곳처제

자기가짐작할수잇는 부인병의증세

東京河合婦人病院長 醫學博士 河合峻策

푸른나무마다 새싹이 돗기시작하는 요새는 건강미에 넘치는 녀성의 매력이 눈에제일띄우지는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모르게병마로 고통을 밧고계신분에게는 지루한 여름더위가 오는고통을 더욱 느끼게하여줄것입니다 무슨병이라도 걸렷슬때 곳치료하게되면 속히 낫지마는부인의 미덕으로 그고통을 참거나또는 여자면 이런증세가잇거니하시고 그리 대사럽게 생각지안코서치료를 등한히하시든가 더욱히살결을 남에게 보이시기붓그러워하여서 의사의진찰도 밧지안코흔이민간에서 팔리고잇는 부인병약을 이약저약 쓰시다가 병도 낫지도안코 금전과 육체적고통을무수히 허비한후 비로소병원에진찰을 바드러오시니 그때에는낫기어려운 중환으로된 분이 만흐니 참으로딱한 노릇입니다 바라노니 여러분께서는 그런법이업시 다음에말삼 드리는부인병증세에 합당한점이 게시거든속히 전문의사의 진찰을바드시거나 또는유명한 병원에서쓰고잇는 의사전문약『와세도環』로치료하시면 병원치료와 똑가튼치료효과를 자택에서 하실수잇습니다

요새에 여러분이 깨달을수잇는 부인병증세로는

두통 현기증 상기증이 심하거나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화색이 나쁘며살결이 거칠어지고 눈거미가 생기거나 머리털에 기름끼가 업서지고 비듬이 생기며 얼굴에 무엇이 모도 생기게 되실것입니다

아래배가 쑤시고 땡기며 허리가 뎁처리가 끈어지듯이 쑤시며 [illegible] 요새가튼 기후에 더구나 아래배가 아플때마다 [illegible] 몹시알케되실것입니다 또한국부가 붓거나 아프며쓰리고 오즘이자지지며 가렵기도 하실것입니다

이상에 말삼드린것이 부인병의 대강의증세이온대 부인병의 병균은 어느곳이냐하면、즉 자궁에기보속입니다、그곳에 병균이 드러가서 여러분이 깨닷는 이상과가튼 증세를 이르키고잇스니、그곳만 곳처버리면바로 모든증세는 사라저버립니다 그러키때문에 부인병치료에 약을 장복하여도 낫지안는것은 자궁속에잇는 병균이 죽지안는까닭이엇스며 직접 국부에 치료하는약이지라도 지금까지에 민간에서 팔리고잇는약은 대개가일장일단의 폐단이잇서 우수한효과를 엇지못하엿든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국대학병원서 쓰고잇는약을 처음으로민간에게 공하는『와세도環』는 재래의모든 부인병약의 결점이모두보충되어잇슬뿐만아니라 우수한리상치료실증을 가지고잇는만큼 그신용과적확한 효과는 더말할것도업스며 집에서라도 유명한병원에서 밧는치료와가튼 효험을 어들수잇스니 여러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와세도環』로 치료하여 주시샤 속히 근치의 기쁨을어더 주십시요

저는이럿케근치되엿습니다

痼疾된月經痛이『와세도環』로낫다

(平昌) 盧福實

조곰도 고통을느끼지안코 順調롭든 月經이 再昨年열아홉살되든해봄부터 빨리젓다가 느저다하고 月經이잇기前後에는반드시 下腹이 몹시 땡기고아푸며 量도 아조적어젓습니다 그대로두면 無月經症이 된다는말에 깜작놀내 粉藥과탕약을 조타는것은 모조리 먹어보앗스나 조곰도 効果를 엇지못하엿습니다 하는수업시 醫師의진찰을 바드려고 어머니한테 의론하여 보앗드니 溶解되는약으로서 흘러내리지안는 最新發明藥『와세도環』면조흘터이니 써보라고하기에 使用하여보앗더니 果然使用中에도 氣分이 輕快하고 月經痛도 점차업서지며 그를따라 月經도 달달이 順調로되어 어머니와 함께기뻐하고잇습니다

악취나는냉증이낫고 同時에살결이고와저

(高城) 張貴姬

…병마로말미암아 고로밧든것이 지금와서생각하면 어제갓습니다 와세도環를 쓰기시작한지 이틀만에 벌서 오줌눌때마다 쓰리든것과 대하물의분량이 적어지는듯 하더니 요새에는 아조업서지고 그말못할 악취도씨서낸듯이 살아젓스니 무어어라고·그기쁨을 엿주어야 조흘는지 모르겟습니다…참으로 先生님께서 말하신대로 기후도 라저안코 그럿케 설하든아래배가 쑤시고 땡기든것이 개어고 살결까지윤이나서 집안사람들의 놀램과/기쁨은 여간이아니고… 이제는 업서오며 선생님의 은혜는 일생두고잊지 안켓습니다

와세도環로 만흔효과를보고잇는 有名한病院의一部

東京帝國大學病院
東北帝國大學病院
京都帝國大學病院
九州帝國大學病院
日本醫科大學病院
大阪醫科大學病院
長崎醫科大學病院
日本赤十字社病院
東京鐵道病院
名古屋鐵道病院
大阪鐵道病院
仙台鐵道病院
聖路加病院
救世軍病院
市立神戶市民病院
橫須賀市立病院
大分縣立病院
弘前市立病院

가정에서손쉽게 근치되는『와세도環』

약가는 十二日分…一圓廿錢 廿四日分…二圓卅錢 三圓四十錢 百四十四環—(病院用)…十三圓이오니 넉넉히쓰시고 우표삼십전을첨부하야 東京市芝區 通新町十二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으로주문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송하야드림니다

【조선국문으로 부인병치료서 무료진정】

待望の二大音樂映畫 東寶

R.K.O特作 ウイリアム・ウエルマン監督

泰西俠盜傳

リチヤード・デイツクス、アイリン・ダン 主演

パラマウント特作、フランク・タツトル監督

青春ホテル

ジヤツク・ベニイ、マーシヤ・ハント、マーサ・レイ 主演

突然同時封切

早朝割引 午前中入場者ニ限リ入場料割引致シマス

朝日・京日 特報ニユース 二社

25日より 黄金座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臟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南米倉町八〇(南電車停) 電話本局(2)一八四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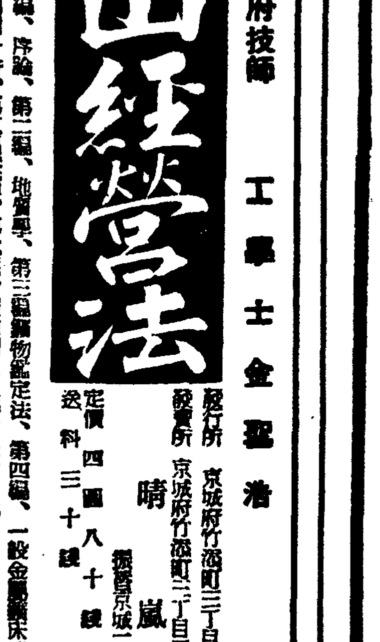
朝鮮總督府技師 工學士 金聖浩 著

鑛山經營法

內容 第一編、序論、第二編、地質學、第三編、鑛物鑑定法、第四編、金床에對하야、第五編、探鑛、第六編、鑛山調査及評價法、第七編、混汞製錬法、第八編、[illegible] 第九編、青化製錬法、第十編、選鑛法、第十一編、金銀乾式分析法、附錄、新規鑛山出願、鑛物採掘申請手續

定價 四圓八十錢 送料 三十錢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番地九七號 發賣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番地九七號 晴嵐社 振替京城二六二五八番



菓子店에잇고 五錢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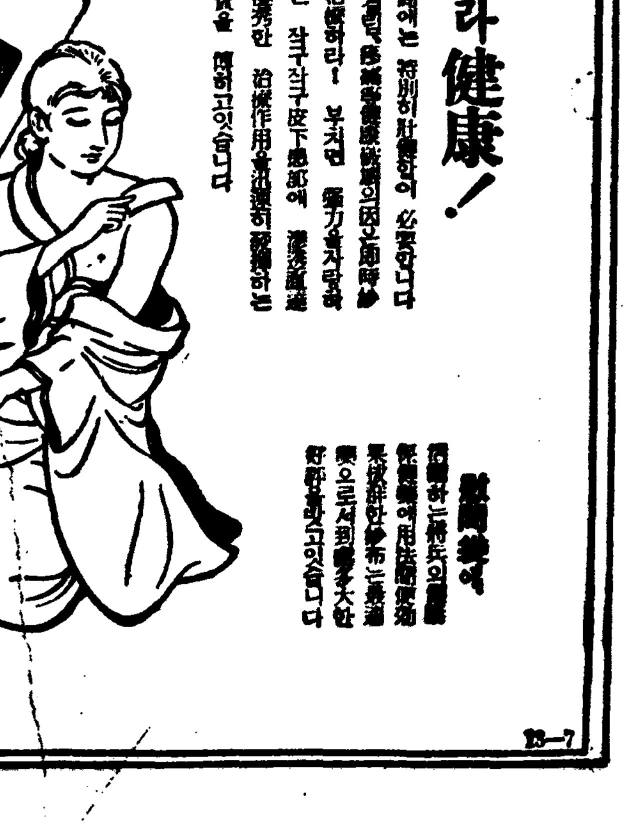
조—끔 먹으면 조—끔 맛잇고! 比較해 먹어보면 第一……맛잇서!

보—이菓子

トウカス

지키라健康!

非常時局에는 特別히壯健함이 必要합니다 肩凝、筋肉、神經痛等이 健康의破壞因子인바 [illegible] 부치면 [illegible] 皮下患部에 浸透하는 藥效는 [illegible] 優秀한 治療作用을 [illegible] 發揮하는 故로 絶賞을 博하고잇습니다



銃後國民에 [illegible]

秘布 外用

主効 肩腰痛 류마치스 筋肉痛 神經痛胃痛 過勞痛 靴傷打撲傷 乳房痛 胸咽喉痛

廿錢卅錢五十錢一圓 各藥店에잇슴

本鋪 株式會社 渡邊輝綱藥房 東京市麻布區飯倉町廿一番地 振替東京四六〇七

特價提供

高麗人蔘

代理店募集 滿洲 北支 內地等 支店長 募集

開城特産貿易社 開城府北本町

●感嘆!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석조흔 ノーシン이다●

奉天測量學院生徒募集

▲本科五十名 ▲速成科五十名 ▲研究科若干名 ▲出願期日四月三十日 ▲考查日五月三日 ▲規則要二錢切手 ▲奉天市十間房測繪局測量 電話二一四六六番振替奉天三三四七番

25日封切

東寶

世紀の合唱

—愛國行進曲—

瀧澤修・藤原釜足 佐伯秀男・北澤彪 佐山亮・英百合子 原作・脚色 小林勝 演出 伏水修 東寶映畫新特作

軍樂七十年、軍樂の父瀬戸口藤吉氏の歩める道は又、我々が知らねばならない生きたる歴史だ 全製作スタッフ、愛國の意氣高き音樂映畫!

R.K.O超特作 フレッド・アステア ジンジャー・ロジャース 主演 空中レヴュー時代

新版 フォックス超特作 ジョージ・オブライエン メリー・ブライアン 限りなき世界

大毎・大朝・ニュース

若草劇

四月廿五日より

維新の歌

松竹京都特作映畫 犬塚稔 監督 坂東好太郎 主演

北見禮子…師 伏見信子…尾上菊三郎 京都スター總出演

明治座久々の時代劇巨篇

銃後報國强調週間

ユーナイト提供 テイム・ウイラン監督

再び戰場へ

出演 レスリイ・バンクス フローラ・ロブス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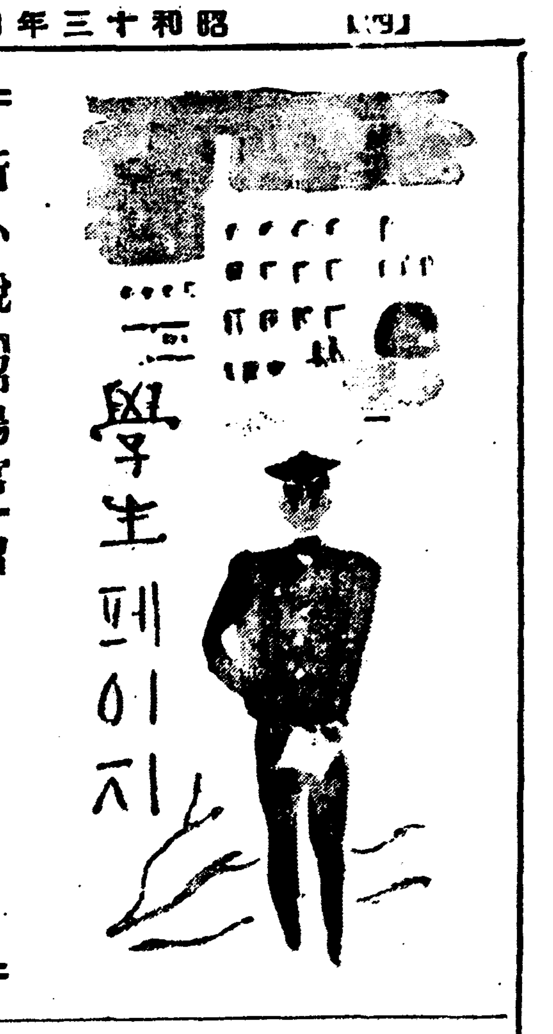
松竹大船作品 監督 蛭川伊勢夫

女學生と兵隊さん

主演 槇芙佐子・東山光子・飯田蝶子

明治座

少年 五月號發賣 [illegible]



新小說「昭陽亭」의 表現手法에 關한 小考

梨花女專 李正淑

『昭陽亭』은 新小說時代의 傑作 李海朝氏의 作品으로 『春外春』이나 『달반』『花月樹』의 祖上이라 할수잇슬것이다 이冊 表紙에는 柳히

素 朴한 짓튼原色으로 그렷이 小說의한 畫面을 다 老松이 선 亭子아래 물결이 깨여지는 달밤에 젊은 女子가 물속에 뛰여드는것을 어떤 男子가달려들어 붓잡는 光景이다.

오늘와서 이런冊들이 행길에서 굴고 時代뒤떨어진 讀物로 農民層으로만 돌지만 언젠가는 이冊도 中流以上家庭에서 歡迎을 받던 黃金時代가 잇섯던것이다 荒唐無稽하고 神出鬼沒 頻의 事實을 主로取扱한 古代小說에 倦怠를 느꼇던 그때에그래도 그時代의 리알리티를 多分히 包含하고 나온 이小說은 當時 全讀書界에 一大 센세순을 이르켯슬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文體는 그야말로 新式이다『정공이 구지저 갈오대』『조흔말로 정공의노를 풀어왈』하는 式이고 이야기도 頗히 朝鮮的인것을 別修飾업시 뻐만추여 내려갓다.

여기 실린 內容을 簡單하게 추려보면 어려라.

鄭氏宅과 **吳**氏宅은 가까운 兩班의 집안들로 鄭氏의 딸과 吳氏의 아들이 철들기前에 約婚을 햇다. 그後에 吳氏夫婦가 어떤사람의 陰謀로 죽게되니까 그아들 봉조는 鄭家로 와잇게 된다. 저들어 禮를 이루기前에 不幸이 鄭氏는 病死하고 鄭夫人은 變心하야 自己딸 채란이를 다른곳에 出嫁시키려고하다 鄭夫人은 친정 동생과 가진陰謀를 다해서 봉조를 쪼차내엿다. 그기미를 안 채란은 몸종 옥엽세우고 봉조의 뒤를 쪼차 그를만낫다. 세사람이 一行이되어 허루길을 다시가 偶然히前부터 親分잇는 집에 이르게되어 自己들의 事情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머물게된다. 채란의 美貌에 반한 主人은 봉조를엽새려고 그고을 郡守와 짜가지고 도적으로 몰아버린다 채란이가 그것을 짐작하고 밤中에 몸을 빼처나와서 가진 手段을 다 하다가 봉조를 救할수업습으로 어떤

欄 干우에서 몸을 물속으로 던지려할때 때마침 지나던 暗行御使를 맛나게된다 어리하여 어느는바 事必歸正이 되는것이다.

이小說을 通하야 뚜렷한 그 時代相을 멧가지 엿볼수잇다. 가진 術策을 다 써서 봉조를 죽이려던 채란이 外三寸이 나종에 벌을 밧는것이나 두번째 봉조를 죽이려던 主人이 斷頭臺압에 서게되는것은 아직도勸善懲惡主義의 古代小說套를 解脫치 못한것을 엿볼수잇다. 親分잇는 親族의 片紙한장이면아모 罪擔도 업시 殺人强盜로 몰아 死刑에 處하는일은 이小說에서 지어낸 일이 아니고 當時에 흔햇던 事實을 끌어온데 지나지 안흐리라고 생각된다. 또는 남의 子女나 下人된사람은 父母나 主人의 怨讐를 자퍼야 아들로 종으로의 할일을 다하는줄로 생각하엿던 옛 道德律에 부되칠수도잇다. 男女의 愛情도 기프면 기픈만치 複雜한 表現方法을 避하고 自己를 죽임으로 갑는 정말

東 洋的인 義라거나 節을 보히는데가 만다. 따라서 貞操觀念이 잘 그려저잇다.

隨筆 早春

梨花女專 申辰淳

立春이 가까워지면 두루매기가 무겁다.

곰팡이라도 피겻갓다. 어깨만 옷의 무게를 가누지 못하는게 아니라 마음도 길던 겨울에 진력이 난다. 햇발이 좀 도타워지나 하면 바람이 휙 불어가고 해서 안타갑게 군다. 요새바람은 옷 갈피갈피를 새어들어 皮膚미틀 살살 기어 도닌다. 주위가 아니라『惡寒』이다.

나는 冬服을 남 먼저 벗서버리기 때문에 봄感氣가 잘 들군한다. 그래서 살랑거리는 바람에 저나치게 敏感한지도 모른다.

늬달이면 疲勞하기 잘하는 내 神經엔 무던히 전 歲月여다.

봄은 하늘에 맨먼저 온다. 얼엇던 하늘빛과 부드러워지면 새것을 渴望하는 마음이 급작스리 깨우쳐지고 마음도 몸도 너무 매리 붙지장을 해버린다. 그래서 雪嶽의 아름다움도 어름판의 壯觀도 다 이저버린 늙은 겨울은 내 마음에서 조롱 부벼게한다.

인제 고만 窓을 화 여러제치고 유대해진 山새소리를 듯고십다. 가벼운 옷자락을 날리우며 松林사이를 맘껏 거닐어 연두빛체 醉하고십다.

내 靈은 瀧속에서 몸을 비비 꼬며 봄을 苦待한다.

노픈 空中에서면 회파람을 불던 바람이 댓새째 땅우까지 나려온다. 이런날 外出을 하면 두루매기 모도리가 날르구 머리털에 허트러지구하는게 동절을 맘바 긁히우는 것 가티 귀찬타. 짜증이난다 모두를 外出을하고나니까 어즈리운 窓버거만 마음이 씨운다.

소나무 가지들이 미처서뛰 흔들린다. 어느 갈래고 떼러저 나물거리는데 회어 꽃들 때미 날지기만한다. 저러케정신업는꼴 못견데하게될고 차라리 우리는 부러저버렸스면 날것갓다.

아우성소리에 해합도 업서 빠졋다.

긴 疲勞와 感氣로 자를어진 神經들이 못견데어 곤이질것 갓다. 온世上이 새로나는 쌕들이 惡寒으로 화곡 소름이 도처올게다.

지금 내게는 외로움을 줄길만한 마음의 健康이 업다. 원수라도 머리마테 안자주엇스 조켓다.

내 靈이 회단는 바람속에 끌려나가서 서답리지안케 外界가 번저들지 못할 붉은기를 만들어주엇스면 조켓다.

俗謠 海峽의 달

日本大學藝術科 金鐘漢

떠나는 關釜連絡船에
무슨죄가 잇겟소
三千里 강산이 무정하지요

絶影島 지나서니
모두 꿈이지만은
울면서 갈라지든 [illegible]아가씨

사나이 마음이라
눈물이야 지리만
七百里 洛東江을 못닛겟소

쌍고동 울어울어
對馬島도 지나니
玄海灘 물결우엔 달도외롭소

上左로부터
佛像頭身(彫刻) 帝美校 李聖華
門 東美校 沈亨求
習作A 帝美校 李快大
少年 帝美校 洪逸杓
少女 帝美校 金學俊

學生作品募集

募集規定

全朝鮮男女學生諸君! 諸君이 家庭에서 學園에서 날로 배흠에힘써 게을리하지안는것은 諸君의 가장 질거운 義務인同時에 또한 그努力의 結果가 우리文化建設의 가장 굿건한 礎石이될것이라는것을 생각하면 실로 우리의 希望은 크다고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어려한 神聖한 職責을 가진 諸君이 고學問의 精工과 硏鑽에 多少의 도움이라도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諸君에게 提供하기를아끼지안는것이다.

그래서 本社에서는 어면에 다른紙面을 割愛하고 特히 學生諸君을 爲해서 每週日曜日마다 오전히 한面을 밧치기로하엿스니 어야말로 諸君의 獨擅場이라 家庭에서 學園에서 배우는 學問과 知識을 가장 自由롭게 活用할 機會를 다투어가지기를 바라는바이다.

應募資格 全朝鮮男女中等學校以上專門大學生

募集原稿 研究論文、實驗報告、隨筆、紀行、書翰、콩트 (以上四百字原稿紙五枚內外) 新詩、時調、漫畫、學園消息 (以上長短隨意)

賞品 每一人一回分에 對하야 揭載되는대로 薄謝를進呈함

其他注意 原稿末尾에 반드시 所屬學校名과 氏名을 明記하되 匿名은 無効로함 無常時로 어느때든지 投稿해도無妨함

朝鮮日報社學藝部

長篇小說 濁流 【182】

蔡萬植 作 / 鄭玄雄 畫

老童「戀愛日記」(九)

승재는 진정설 문을 빠그르 잠그느라고 한참 꾸물거리다가 겨우 돌아 선다.

『내가 애기를 업구 갔다?…건 정말루 고쓰까이 자는데구? 헤헤』

실상은 그러케 하고 바서면 고쓰까이가 아니라 짜장, 초롱이와 짝이 된, 에에비의 서늘어려니 해서, 불길스런 엽비감어 드는것을, 제딴에는 농담으로 농치던것이다.

이러케 소심하고 언색스런데다 대면 계봉이는 오히려 대범하여 그런 좀스스런 걱정은 안코 농도 인제는 하지안는다 그러기 때문에 승재의 그말을 밧어 얼핏

『고쓰까이 가든가? 며…애겨 아버지 가든지, 하하하』

하면서 이상이다. 계봉이자 여러케 털어 놋는 바람에 승재도 할수업시 파랄이 되어

『애기 아버지면 더 야단 바게?…… 누구 울라구?』

하고 짐짓 한술 더 뜬다.

『날 울리면 용하지! 난 짜짓만 꼴고두 하는걸 안에 빼하구 어떠커나!』

『그럼 어쁘거두 생기덜 안쿠 그렇스면 미워하겟네?』

승재는 안부러나 그애가 초봉이로 더부러 머지안어 재생활의 테안에 들어올것으로 치고 잇는터라 그 조고만한 접단(集團)의 커다란 세력인계봉이의 그애에게 대한 심정이좌우간 참고가 되지 안흘수도업던것이다.

『그거야 무잔어두 이뻐게 생기구 이뿐짓을 하구 하니까 어빠하지요?…。우리 병주송각 못보우? 생긴게 짜락소가튼 되련님이 그갑 하느라구 세상 미운짓은 다 하구다니구…。그러니깐 내가 그애는 어디 이뻐해요?』

『그건 좀 박설 하잔나! 동기간에…』

『딴청을 하네! 동기간의 정은 또 달은거 아니우? 미워해두 동기간의 정은 엇는것이구, 남의집 아이면은 정은 업서두 이뻐할수는 잇는것이구…』

다리 우리 송이가 남서방 생겻으면치 착한 파파란두 생겻으면 조켓어!』

『연애를 갓다가 『께엄』 여래더니암만해두 작난을하나봐!』

승재는 구두를 끄내면서 혼자 두런거리고 계봉이는 지성으로 얼굴을 드려다 보아준다

『왜? 소내기 마젓수? 뚜얼자꾸만 쑹얼쑹얼허우?』

『작난 하기는 아니야!』

『네—에 단연코 작난이 아닙니다—요! 되렌님……』

『그럼 무어구?』

『칼모친형』이나수도원 『형』어어닐뿐이지요……。칼모친형알어요?……실련하구서 칼모친선세 저는거…또 수도원 형은 수녀(修女)사리 가는거』

『대체 알기두 잘은 알구 말두 묘하게는 만들어 댄다! 원 어디서 모두 그러케 배웟수?』

승재는 어이가 업다고 빼연히 서서 웃는다

『하하하… 그런데 크건 크거구 따루 말이우… 따루 말인데 우리 송히자 남서방가튼 조혼 파파겨 엿다면 성말 좋거야!…인제 이따가라두 보우 마는 아 고놈이거떠케 이뿌다구!』

『그런가!』

『인제 가서 봐요! 남서방두 닭바 이뻐서 마구…』

『계봉이두 그애를 그러케 여빼하나?』

『이뻐 하기만!… 아 고놈이 글세 생기기두 어뿌디 이뿌게 생긴 놈이 계다가 예쁜

[illegible] 송이?』

『응, 송히… 송히는 내가 어빼두하구, 정두 들엇구…두가지루 다아…。그러니깐 글세, 그걸 알구서, 언니가 송히를 낫만 밋구, 자기는 죽는다는거 아니우?』

『허어!』

승재는 새삼스럽게 감동을하면서, 우둑허니 서다가 중얼중얼 혼자 말하듯 중얼거린다。

『쯧쯧!…… 그래, 필경은 그애를,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두 아깝덜 안타! 목숨을 버려가면서 라두 자식을! 응, 응…。거 원 모성애다께 그러케두 철두철미하구 끔찍한단 말인가!』

『우리 언니는 사정이 특수하기두 하지만……、그런데 참……』

계봉이는 문득 같은 생각이 나서, 이애기 하던 말 머리를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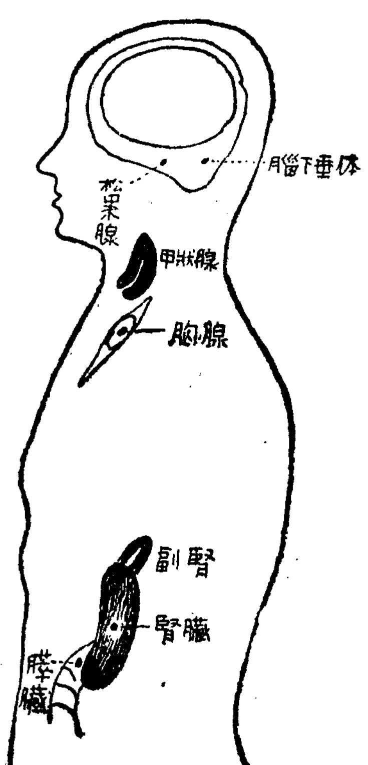
『세상에 부두가, 그중에서도 어머니가, 어머니라두 우리어머니는 예외지만……、항용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거란 퍽두 끔직한건데, 그런데 말이저요, 그런 소중한 모성애자 이세상의 일반 인간들한테는 괴눈한것 가터! 도야저한테 전수라까?』

『건또 웬소리?』

승재는 문을 열다가 도라서서, 계봉이를 찬찬히 디려다본다. 대체 너는 어쩌면 그러케 당돌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곰잇는난、얼굴이다。

精力을 샘솟게하는 强力的호르몬劑

단 Dan



남녀를물론하고 『단』을복약하기시작한지 하로면 얼골에微笑가띄워지게되며 여를어면 기쁨과 快感이 몸전신에 늠늠하게되는 百發百中의 성욕흥분제입니다

本劑는 단순한性홀몬劑가아니오니 몸전신의 중요한綜合홀몬作用을 왕성케하야 持續的으로 성적흥분을 충동식혀주며 더욱여 몸전신의원기를 활기늠늠하게하여주는 영약입니다

그러므로 本劑의약효는 재래의이령안종유의약에 약만뜨지면 그만 약효가없어지는것과는根本的으로달너 빈그릇에 물을담어서 하나갓득채인후 늘 물을부어주어서 적당히 흘너내려도록하는的確한藥効를가지고잇읍니다

文化人인여러분! 늘生活戰線에서 른른한일군이되시여 활동하실여러분! 무엇보다도 精力과성욕본능이 왕성하신분이 最後의勝利者가 되는歷史的事實을 잘아시고계실줄밋읍니다 그뿐만아니라 人間으로래여난이상 그義務를위하야 家庭의和平을위하야 男子는충분히女子께만족을주어야되고 女子는 남자께원만한만족을드려야만되오니 하로빠삐 本劑를복용하여주시사 그면속한靈効로써幸福을얻어주십시요

속히 늙어져서 人生의享樂의길을 원만히다하지못하시와 한탄하시는분 부부화합에자미를모르시는분 마음만 안타가워하시나 엄의대로 활을막지못하시는분 허약하신분 성거發育不完全하신분 夢精 遺精 陰萎 早漏하시는분 성욕이 동하지안는분 動脈硬化 血壓亢進 視力減退하신분들은 조곰도주저마시고 人生의最大快樂을 끝없이 깨닷게하여주는 强力홀몬劑『단』으로 근치하시고 잃어버려엇든 김뿜과幸福을도로찾어주시기바람니다

약가—五十粒 三圓五十錢
百粒 六圓 二百粒十圓

本劑는責任製藥인만큼 직접本舖에注文하시는분께만販賣하옵니다

룡지하시는대로 本報愛讀者에한하야 本劑의試用藥二日分과귀중한책『性의健康法』을진정하옵니다

東京市牛込區若松町百十二ノ十一
日本生化學硏究所
振替東京六六七一九

健康美

戰勝日本女性の教養

1 잘 발린다

日本婦人의살결에착드러맛도록特別한硏究를 해서만든白粉인故로땀나는 봄철에도 굉장히 잘발리고 終日토록 저탕합니다

2 色은 明朗

확 피여진爛漫한꽃 코발트의 蒼空과도 가러 明快한 感觸을자견 色調지요! 여며한살빛을가진분에 게라도잘調和됩니다!

3 明朗한健康美

戰時女性의몸단장으로서適切한近代的인健康美가潑剌하게 넘칩니다 레—도粉白粉이야말로 國産最高의優秀品입니다!

肌色・濃肌色
오—클・白色

レート粉白粉